

2022. 6. 20.

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

여름철,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준수사항

수온이 18 °C 이상이면 전국 바다에서 원인 병원체가
매년 검출되는 비브리오패혈증의 증상, 예방방법, 치료방법에
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

2022. 6. 20.

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

비브리오패혈증이란?

비브리오패혈증균(*Vibrio vulnificus*) 감염에 의한
급성 패혈증으로 **오염된 어패류를 생식**하거나
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됩니다.



비브리오패혈증균(*Vibrio vulnificus*)
따뜻한 바다에서 흔히 발견

2022. 6. 20.

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

비브리오패혈증 증상은?



세균 침입 후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잠복기는 **12-72시간** 입니다.
주요 증상은 **급성 발열, 오한, 복통, 구토, 설사** 등 입니다.
약 1/3의 감염자에서 **저혈압**이 발생합니다. 증상 시작 후
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 주로 **다리**에 발생합니다.

2022. 6. 20.

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?



피부에 상처가
있는 사람은 바닷물에
접촉하지 않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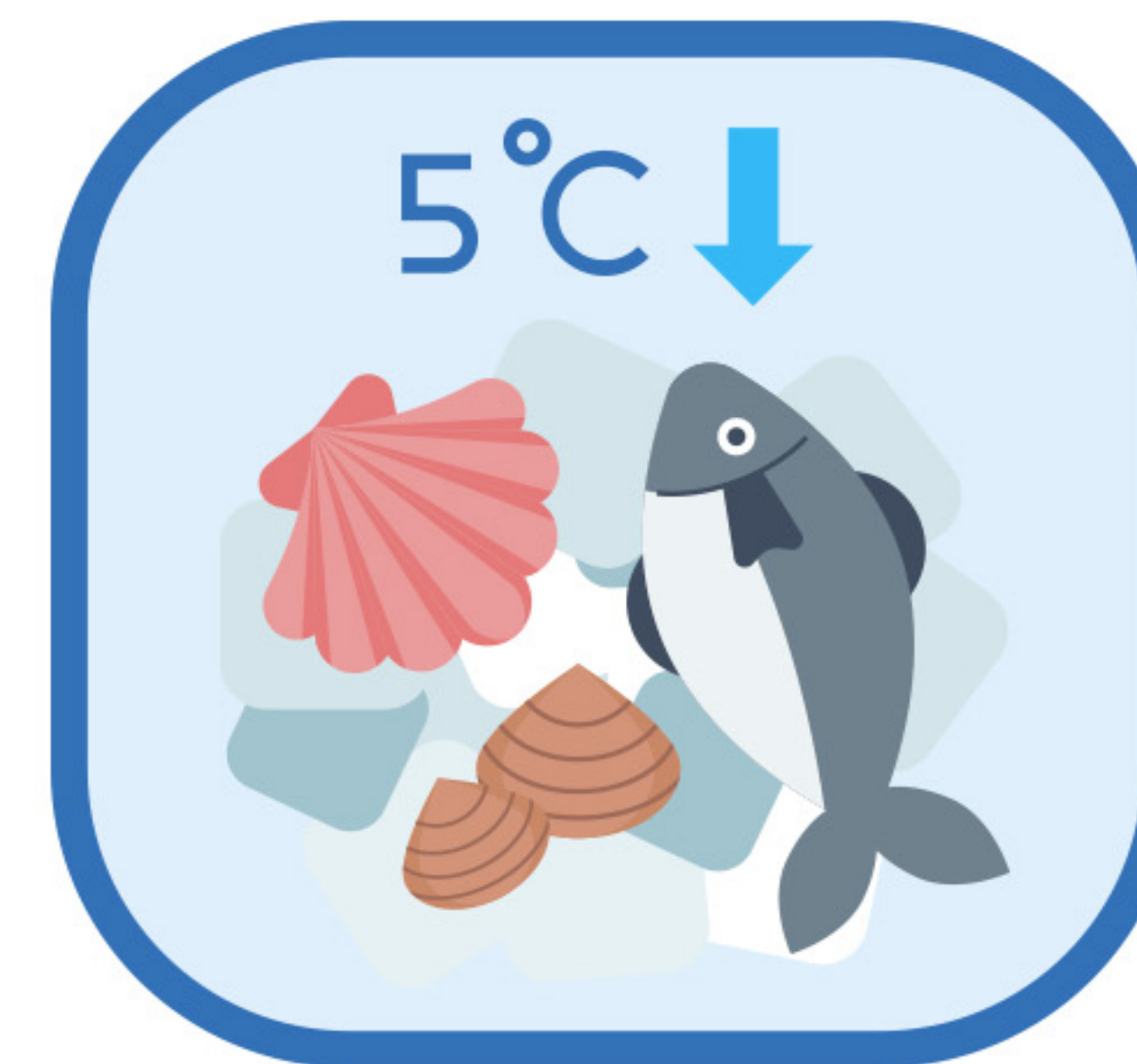
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
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.



어패류를 다룰 때
장갑을 착용한다.



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
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
깨끗이 씻어야 한다.



어패류는 5°C 이하로
저온 보관한다.

2022. 6. 20.

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

비브리오패혈증 치료 방법은?

- ✓ 치료방법에는 **약물로 치료**하는 방법과 **수술로 치료**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- ✓ 약물치료시 플로오로퀴놀론 계열이나 세팔로스포린, 테트라사이클린 등의 **항생제**를 투여합니다.
- ✓ 병변이 심한 경우에는 **절제, 절개하거나 고름을 짜내는** 등의 외과적 처치를 시행합니다.

